

편리한 교통 많은 볼거리 '오고 싶은 곳' 만들기에 총력

익산시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관광도시 원년 선포식'을 지난 5월 14일 금마면 서동공원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관광도시 원년 선포식에 참여한 정현을 시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조금씩 빛 발하는 중점 추진 정책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올해를 관광도시 익산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광정책이 조금씩 빛을 발해 관광도시 도약에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고 있다.

▲전북 최초 순환형시티투어버스 운영

익산시는 지난 8월 전북 최초로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KTX익산역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익산백제유적지를 운영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본격 운영했다.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를 연계한 '세계유산 여행상품', '열차타고 떠나는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여행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천만송이국화축제기간동안에는 매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해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개별 여행객들의 관내 관광확대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KTX익산역 열차이용객 1일 평균 2만명 시대를 맞이해 개별 여행객 수요 증가 대비와 지리적으로 분산된 관광지를 연결해 관광상품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는 익산관광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KTX익산역에 지난 9월부터 익산시 관광안내소를 열린 정보 제공형으로 신설 운영해 KTX익산역 방문객들이 익산 관광객으로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에 문화콘텐츠를 더한 관광콘텐츠통합지원사업 추진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7년 관광콘텐츠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채택 중심의 관광프로그램, 기획공연 등 문화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해 관광의 질적 향상에 집중했다. 천만송이국화축제 기간 동안 '테너 신동호&보헤미안 싱어즈 감성클래식 여행콘서트' 기획공연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티 투어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체험형 시티투어, '익산고백(Go-100)' 투어를 선보였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선화와 서동.



용안 바람개비길에 세워진 바람개비들.

KTX익산역 중심 백제유적지 운행
도내 최초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문체부 관광콘텐츠 지원 공모 선정
천만송이국화축제 기간 동안
기획공연 통해 볼거리도 제공

익산교도소세트장·바람개비길 등
이색장소, 신규 관광지로 부각

국내 최대여행사인 하나투어와
관광발전 위한 협약도 체결
전국체전 대비 홍보마케팅계획 수립

▲익산교도소세트장, 용안바람개비길 등 신규 관광지로 부각

풍경을 감상하는 관광에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으로 진화하며 '죄수 코스프레'가 가능한 익산교도소세트장과 '사진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용안바람개비길 등이 신규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익산교도소세트장은 드라마, 영화 촬영장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직접 죄수복을 입어보며 교도소를 체험해 볼 수 있어 주말에만 2,500여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다. 총 길이 4.9km에 달하는 바람개비길이 조성된 용안면 생태습지 공원 옆 바람개비길은 '사진 속 주인공'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 덕분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인생사진 찍기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도 천만송이국화축제기간 웨딩드레스와 약세서리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웨딩 화보촬영을 해주는 웨딩드레스 특별체험도 큰 인기를 모았다. 시는 이 같은 관광객들의 체험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

합관광콘텐츠사업 일환으로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백제의복 체험과 왕궁 포토존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여행사 손잡고 관광도시로 도약

시는 이달 초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대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익산시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 관광정책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하나투어는 국내 최대 홍보마케팅 플랫폼으로 익산관광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익산시는 내년 서동축제와 전국체전에 대비해 공격적인 익산관광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거점지라는 장점을 활용해 전북 토탈관광 배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www.khnp.co.kr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정보

- ▶ 개관시간 : 주중 09:00 ~ 17:00, 주말공휴일 10:00~16:00 (입장료및주차료 무료)
- ▶ 휴 관 일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 신정 · 설연휴 · 추석연휴 · 기타 회사기념일 또는 지정일
-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 2144 · (063)324-3665 / FAX: (063)322-2063
- 인터넷신청: www.khnp.co.kr/전수원 방문신청 / SMS인증 / 무주양수 전시관
- ▶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